

12-06 (통권 제 477호)

2012. 2. 1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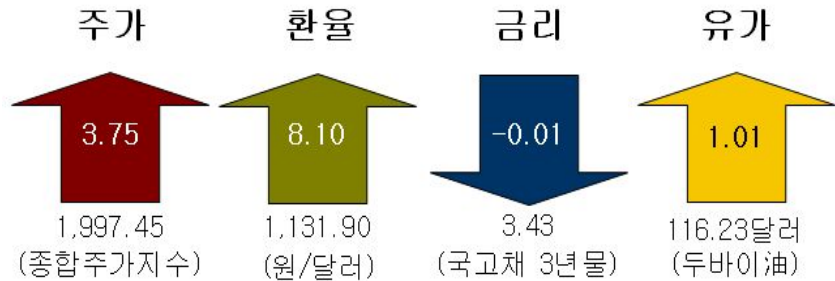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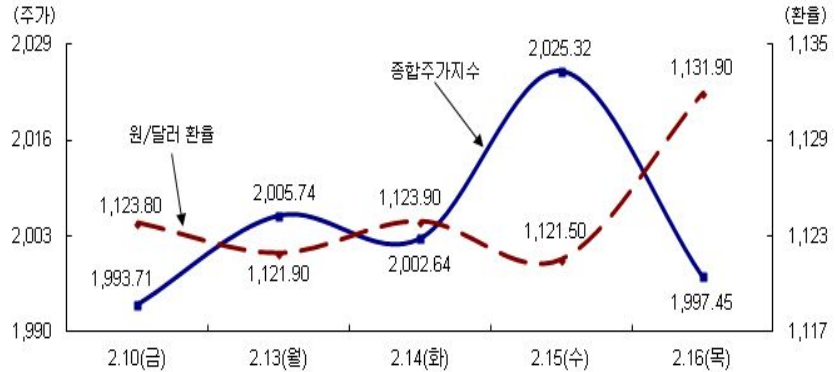
-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現代經濟研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0~2.16)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부 형 연구위원 외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MB정부 경제의 명과 암

■ MB정부의 성과 평가 배경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크고 향후 지속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해이다. 따라서 과거 4년 간 MB정부 평가를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잔여임기 1년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 MB정부 경제의 7대 명암

지난 4년 간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많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어 명과 암이 엇갈린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경제위기는 잘 극복하였으나 분배는 악화되었다. MB정부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소버린위기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였다. 하지만, GNI 증가율이 2.2%로 타 정부를 밀돌고, 지니계수도 상승하는 등 분배구조가 악화되었다. **둘째, 외수가 확대된 반면 내수는 부진했다.** 무역의 對 GDP 비중이 90%대로 상승하였고 성장기여도도 1.5%p로 참여정부보다 상승하는 등 외수부문이 확대되었다. 반면, 내수의 對 GDP 비중은 MB정부 들어 93.3%로 하락하였고, 내수기여도도 YS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6%p에 그쳤다. **셋째, 장년 일자리는 증가하였지만 청년층 고용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MB정부 들어 40대 이상 신규취업자 수는 약 3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8만 명 감소하여, YS정부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넷째, 지방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었다.** MB정부에서는 지방의 전체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지속 상승하였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주택전세가격 상승세가 매우 빨랐다. **다섯째, 복지 지출이 늘어났지만 국가부담은 증가하였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MB정부 평균 9.5%,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32.4%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에 달했다. **여섯째, 수출기업 실적은 호조세를 보인 반면 내수기업의 업황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4.5%로 YS 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보였으며, 매출액순이익률도 참여정부 수준인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내수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수출기업에 못 미치고 매출액순이익률도 참여정부보다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격차도 확대되었다. **일곱째, 韓美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南北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MB정부 들어 韓美 FTA 체결 등 韓美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교역 증가율 급감, 관광사업 중단 등 경협사업이 주춤하고 있고, 천안함사태와 연평도사건과 같이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크게 악화되었다.

■ 시사점

남은 임기 1년 동안 MB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 각종 규제의 합리화,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 청년층 일자리 확충, 물가 및 전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서민생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도 남북관계 불안정에 따르는 손실 방지 노력은 물론 실리적인 입장에서 경제적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1. MB정부의 성과 평가 배경

- MB정부 집권 초기에는 친기업정책 추진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였으나, 집권 중반 이후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MB정부 초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란 열악한 환경 하에 대외적으로는 G20 의제 주도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대내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여 경제위기를 잘 극복
 - 대외적으로는 G20 의제 주도 등 리더십 발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
 - 대내적으로는 2008년 MB정부 출범 당시 167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의석을 토대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강력 추진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단락된 집권 중반인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서민정책과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등 분배와 복지로 정책 기조가 변화되었음
 - 2010년 지방선거 이후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2011년 백화점 카드수수료 인하, 2011년 유가 리터당 100원 인하,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 친서민정책과 동반성장정책 추진

< MB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추이 >

시기	MB정부 출범 (2008년2월)	지방선거 패배 이후 (2010년6월 이후)	정권 말기 (2012년 이후)
정책 기조	친기업, 작은 정부	동반성장	친서민, 복지 강화
정책 수단	- 법인세 · 소득세 인하 - 부동산 규제 완화 - 출자총액제한 폐지	- 유가 인하 - 카드 수수료 인하 - 이익공유제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보육지원 등 복지 강화 - 소상공인 적합업종 발표

- 한편, 2012년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 이슈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해 있음
- 이에 지난 4년간의 MB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남은 1년 간 MB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MB정부 평가는 경제 각 부문을 중심으로 집권 1년차의 초기 조건 및 역대 정권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함
- 평가 분야는 경제 및 분배, 경제성장 구조, 고용, 국내 자산 시장, 복지 및 재정, 기업, 南北관계의 7개 분야임
- 평가 기준은 역대 정권의 각 부분별 성과 대비 MB정부 4년 간의 성과를 평가기준으로 삼음

< 평가 분야 및 항목 >

평가 분야	평가 항목
경제성장과 분배	- 경제성장 실적(경제성장률), 분배 구조(지니계수)
경제성장 구조	- 내수와 외수의 對 GDP비중 및 성장기여도
고용 시장	- 실업률, 고용 창출(부문별 일자리)
국내 자산 시장	-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복지와 재정	- 복지 예산, 국가부채
기업	- 수출기업, 내수기업 경영성과
南北관계	- 對北 교역, 정치·군사 관계

2. MB정부 경제의 7대 明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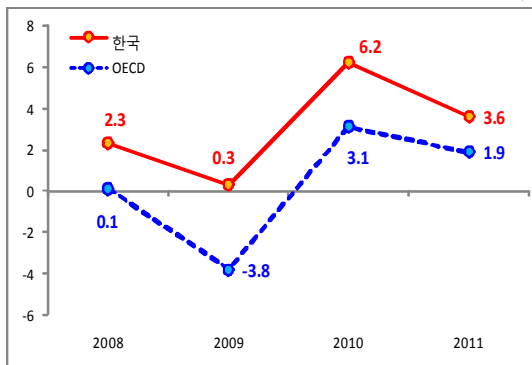
① 경제위기는 잘 극복하였으나 분배는 악화

○ MB정부 들어 두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OECD 국가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분배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 MB정부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소버린 위기(Sovereign Risk)의 두 차례 경제위기를 겪었으나, 경기 침체 정도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약했으며 회복 속도도 훨씬 빨랐음
 - MB정부 평균 경제성장률 3.1%는 지난 YS정부 7.4%, DJ정부 5%, 참여정부 4.3%에 못 미치나 이는 두 차례의 위기 때문
 - MB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OECD평균 0.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반면, 소득 증가 속도가 타 정부보다 느릴 뿐 아니라 소득분배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등 분배측면에서는 다소 악화
 - 소득지표인 GNI 증가율은 MB정부가 2.2%로 참여정부에 비해서는 1.2%p, YS정부에 비해서는 4.3%p 낮음
 - 국내 지니계수는 YS정부 0.253, DJ정부 0.279, 참여정부 0.281, MB정부 0.293으로 MB정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과 OECD 경제성장률 비교 >

(단위 : %, p)



자료 : 한국은행; OECD, *Economic Outlook*, No. 90, Dec., 2011.
 주 : OECD 2011년은 전망치.

< 경제성장률, GNI, 지니계수 추이 >

(단위 : %, p)

구분	MB 정부 (4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경제 성장률	3.1	4.3	5.0	7.4
GNI	2.2	3.4	3.9	6.5
지니 계수	0.293	0.281	0.279	0.25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한국은행.
 주 : 경제성장률과 GNI는 증감율 평균이며, 지니계수는 계수값의 평균. 단, MB정부 GNI는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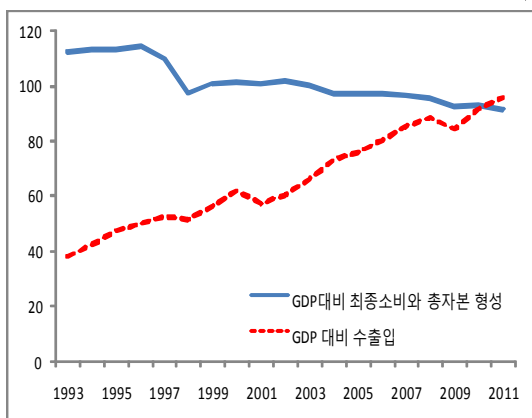
② 외수는 확대된 반면 내수는 부진

○ MB정부 들어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외수 부문이 확대 되었으나,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 MB정부 들어 교역규모 1조 달러 달성, 평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200억 달러 시대 돌입 등으로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 외수 부문 확대
 - 2011년 현재 국내 교역규모는 1조 809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출 규모는 5,565억 달러로 세계 7위를 달성하며 무역수지가 연평균 251억 달러, 경상수지도 연평균 233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YS정부 이래 개선
 - 이로 인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이 2011년에는 96%로 내수(최종 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 91.6%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평균 외수 비중도 90.1%로 YS정부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에 민간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GDP 대비 내수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성장기여도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GDP 대비 내수 비중은 YS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 MB정부에 와서는 평균 93.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참여정부 3.2%p의 절반 수준인 1.6%p로 하락

< 내·외수 비중 추이 >

(단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내·외수 성장기여도 추이 비교 >

(단위: %)

구분	MB 정부 (4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내수기여도	1.6	3.2	3.3	6.8
외수기여도 (순수출)	1.5	1.1	1.8	0.6
내수 비중	93.3	97.8	100.4	112.5
외수 비중 (수출·수입)	90.1	76.2	57.4	45.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주 : 외수 비중은 수출과 수출입의 합계를 GDP로 나눈 값.

③ 장년 일자리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층 고용은 개선 지연

○ 고용 측면에서는 4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청년층 고용 환경 개선이 미흡함

- MB정부 들어 전체 실업률은 참여정부 3.5%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도 20만 명을 넘어섬
- 하지만,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 MB정부의 청년실업률은 7.2%로 참여정부 7.5%와 유사한 수준이며, 이는 전체 실업률의 2배, 40세 이상 실업률의 3.5배 이상 수준임
 - 40대 이상 신규 취업자 수는 약 35만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경우는 8만 명 감소
 - 청년취업자 감소세는 YS정부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DJ정부 11만 명, 참여정부 약 12만 명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연령대별 실업률 비교 >

(단위: %, 만명)

구분	MB 정부 (4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전체 실업률	3.2	3.3	4.9	2.4
청년 실업률 (15-29세)	7.2	7.5	9.0	5.5
40세 이상 실업률	2.0	1.9	3.3	1.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통계청.
주 : 구직자 1주 기준으로 작성.

< 연령대별 신규 취업자 증감 비교 >

(단위: %, 만명)

구분	MB 정부 (4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전체 취업자 증감 (만명)	20.3	25.3	19.1	44.1
청년 취업자 증감	-8.1	-11.9	-11.0	-1.4
40대 이상 취업 증감	34.6	40.7	33.8	33.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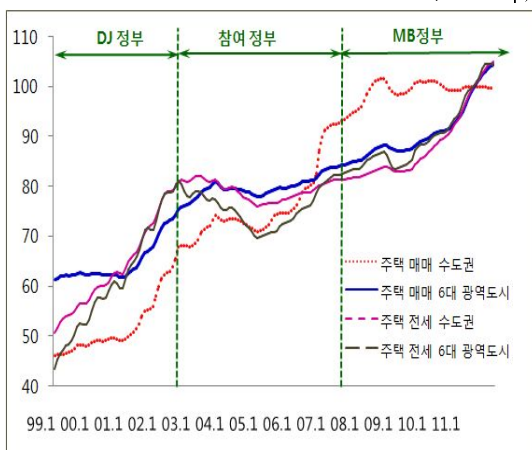
④ 지방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었으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

○ MB정부에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도권은 부동산 매매 거래 축소로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급등함

- MB정부 들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 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상승세 지속
 - 광역 6대 도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평균 증가율은 MB정부(2008~2011년) 평균 4.4%로 참여정부 2.8%보다 1.6%p 높은 수준
- 한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수도권 및 광역 6대 도시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
 - MB 정부(2008~2011년)의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지수 평균 증가율은 1.8%대에 그침
 - 한편, 수도권과 광역6대 도시 전세가격지수 증가율은 전국 전세가격지수 증가율을 상회하였을 뿐 아니라 전세가격이 안정되었던 참여정부와는 대조적

<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추이 >

(단위 : p)



자료 : 국민은행.

<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 비교 >

(단위 : %)

구분		MB 정부 (4년)	참여 정부	DJ 정부
주택 매매	전국	3.0	5.3	7.5
	수도권	1.8	8.0	11.0
	광역6대 도시	4.4	2.8	5.9
주택 전세	전국	5.2	1.2	14.0
	수도권	5.4	0.7	13.3
	광역6대 도시	5.2	1.2	17.1

자료 : 국민은행.

주 : DJ 정부는 3년 (2000년-2002년), MB정부는 4년(2008-2011년) 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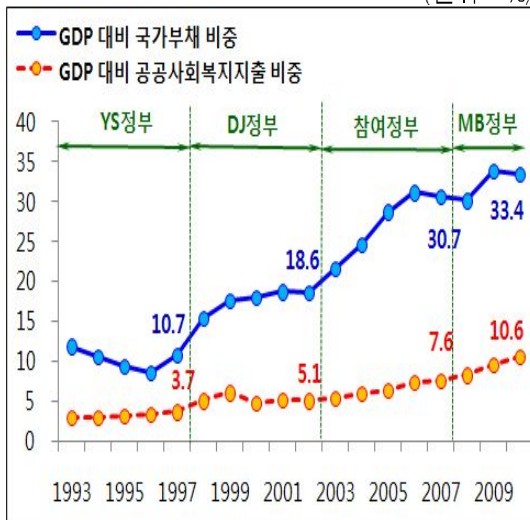
⑤ 복지지출이 증가한 반면 국가 부담은 가중

○ MB정부 들어 복지지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부채도 30%대를 돌파하면서 국가 부담이 커졌음

- MB정부 들어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정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
 -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MB정부(2008~2010년) 평균 9.5%로 참여정부 6.6%보다 2.9%p 높은 수준
- 한편, 복지지출 증가와 더불어 국가부채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0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한국이 33.4%로 OECD 평균 97.9%에 비해 낮은 수준
 - 하지만, YS정부 10.2%, DJ정부 17.6%, 참여정부 27.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

< 복지지출과 국가부채 추이 >

(단위 : %)



자료 : IMF.

< 복지지출과 국가부채 비교 >

(단위 : %)

구분	MB 정부 (3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	9.5	6.6	5.3	3.3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32.4	27.3	17.6	10.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MB정부는 3년(2008-2011년) 간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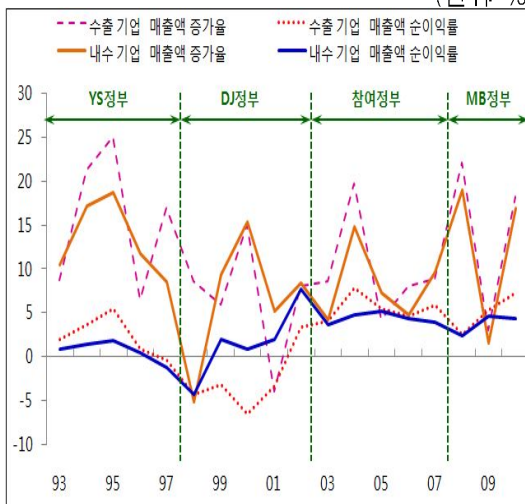
⑥ 수출기업 실적은 호조였으나, 내수기업은 상대적으로 업황 부진

○ 기업 측면에서는 수출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호황이 이어졌으나, 내수기업의 업황 부진으로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실적 차가 확대

- MB정부 3년간(2008~2010년) 수출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4.5%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매출액순이익률도 5.1%로 5%대를 유지
 - 매출액순이익률은 참여정부 시 5.6%로 가장 높았음
- 이에 반해 내수기업들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은 12.4%로 YS정부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수출기업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고, 매출액순이익률도 3.7%로 수출기업은 물론 참여정부의 4.3%보다 악화
- 더욱이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매출액순이익률 격차도 MB정부 들어 각각 2.1%p, 1.4%p로 참여정부의 1.7%p, 1.3%p에 못 미치는 수준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경영지표 추이 >

(단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경영지표 비교 >

(단위: %)

구분		MB 정부 (3년)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수출 기업	매출액 증가율	14.5	9.9	6.8	15.7
	매출액 순이익률	5.1	5.6	-2.8	2.3
내수 기업	매출액 증가율	12.4	8.2	6.6	13.3
	매출액 순이익률	3.7	4.3	1.6	0.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주 1. 제조업 기준임.

2. MB정부는 3년(2008-2010년) 평균임.

⑦ 韓美 관계 개선되었지만 南北 관계는 악화

○ MB정부 들어 韓美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南北 관계는 교역 증가율이 급감하고 관광사업이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천안함사태 등 정치·군사적으로도 매우 악화된 것으로 분석

- MB정부 들어 韓美 FTA 협정 체결, 韓美 동맹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양국 간 공조 강화 등 韓美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교역 증가율 급감, 관광사업 중단,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 급감 등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최고 지도자 간 남북대화 중단, 천안함사태 및 연평도사건 등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도 남북 관계가 악화
 - DJ정부와 참여정부 시 20% 이상 수준을 유지하던 남북 교역 규모 증가율은 MB정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
 - 이외에도 참여정부 시 연간 35만 명 수준까지 증가했던 금강산, 개성 관광도 2009년부터 중단되었으며, 남북 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2011년 20건으로 2007년 188건을 기록한 이래 대폭 감소
 - 한편, MB 정부 들어 남북 최고 지도자 간 대화가 중단되었을 뿐 아니라 천안함사태(2010년 3월 26일), 연평도사건(2010년 11월 23일) 등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남북 간 긴장이 지속

< 남북 교역 규모 추이 >



자료 : 통일부.
 주 : 남북 교역 규모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이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 및 민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정부별 남북교역 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MB 정부	참여 정부	DJ 정부	YS 정부
교역규모	1,781.3	1,124.8	405.2	245.4
교역규모 증감율	-0.8	24.3	20.8	9.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남북 교역 규모에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경제협력(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이 포함), 비상업적 거래(정부 및 민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시사점

- 지난 4년 간 MB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과 함께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국가재정 부담이 커진 반면 고용과 물가 등 서민체감경기 개선이 부진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등 향후 1년 간 보완되어야 할 부문도 다수 존재
- 집권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기반 강화, 서민생활 안정 등의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對北 관계 안정을 통해 국가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임
 -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의 해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럽 재정위기 여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 기업투자 활성화, 내수 촉진, 각종 규제의 합리화, 정책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후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높여야 함
 - 또, 청년층 일자리 확충, 물가 안정, 전세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꾀해야 함
 - 한편, 남북관계도 남북 관계 불안정에 따르는 손실 방지 노력은 물론 실리적인 입장에서 경제적인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 금강산관광 등 관광사업 재개 등과 같은 남북 경협 관련 현안 뿐 아니라 국경지역개발이나, 북한 자원개발 등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경제문제에 대한 진전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불안정에 따르는 손실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이부형 연구위원 외 (2072-6306, leebuh@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2.8	1.8
유로 지역	1.8	0.4	1.0	0.4	0.3	1.6	0.8	0.2	0.2	-0.3	-0.5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1.7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10일	2월 1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99	1.98	-0.01%p
	엔/달러	81.19	80.66	77.66	77.65	78.40	0.75¥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3285	1.3055	-0.0230\$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01	12,904	103p
	닛케이 지수(p)	10,229	9,817	8,455	8,947	9,238	29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44	3.43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23.8	1,131.9	8.1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93.7	1,997.5	3.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2월 10일	2월 1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98.78	102.29	3.51\$
	Dubai	88.80	106.75	104.89	115.22	116.23	1.01\$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312.14	316.41	4.2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E	
				1/4	2/4	3/4	4/4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0.3	6.2	4.2	3.4	3.5	3.4	3.6	4.0	
	민간소비 (%)	0.0	4.1	2.8	3.0	2.0	1.2	2.2	2.5	
	건설투자 (%)	3.4	-1.4	-11.9	-6.8	-4.6	-4.0	-6.5	2.3	
	설비투자 (%)	-9.8	25.0	11.7	7.5	1.0	-3.4	3.8	5.5	
대외거래	통관기준	경상수지 (억 \$)	328	294	26	55	69	127	277	170
		무역수지 (억 \$)	404	412	71	84	63	104	321	290
		수출 (억 \$) 증감률 (%)	3,635 (-13.9)	4,664 (28.3)	1,310 (29.6)	1,427 (18.7)	1,412 (21.4)	1,416 (10.0)	5,565 (19.3)	6,344 (14.0)
		수입 (억 \$) 증감률 (%)	3,231 (-25.8)	4,252 (31.6)	1,239 (26.2)	1,343 (27.1)	1,349 (27.6)	1,313 (13.4)	5,244 (23.3)	6,054 (15.5)
소비자물가 상승률 (%)		2.8	3.0	3.8	4.0	4.3	4.0	4.0	3.5	
실업률 (%)		3.6	3.7	4.2	3.4	3.1	2.9	3.4	3.6	
국고채수익률 (3년, 평균, %)		4.0	3.7	3.8	3.7	3.6	3.4	3.6	4.0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276	1,156	1,120	1,083	1,085	1,144	1,108	1,05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